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 정치, 연예보다 중요한 예수”

지오앤디교회

임진혁 목사 초청 부흥회

13일 저녁 7시, 지오앤디교회 (Go&Disciple Church, 정병규 목사)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임진혁 목사(한국 마가의다락방교회)는 “지금은 마지막 시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각성을 주문했다. 임 목사는 시대의 타락과 교회의 영적 무기력을 말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인기를 얻음만큼 얻었고 힘도 가졌지만, 그 힘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맛을 알고, 돈의 유혹에 빠지면서 점차 영적인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며 “처음에는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신앙이 기계적으로 흘러가게 됐다. 이때 반드시 스탑해야 한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임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로 ‘

자아’, ‘세상’, 그리고 ‘사탄’을 들었다. 특히 사탄의 존재를 강조하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영적인 영향력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으면 마귀에게 100% 잡힌다”라며 “사탄은 신학 지식조차도 교만의 도구로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학대학 시절, 한 선교학 교수가 “요즘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경험을 회고하며, “지식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 지식만이 아닌, 은혜 속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도 집회는 많은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체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말씀과 기도를 내면화하고 몸으로 익히는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전략에 서서히 무너지는 현실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마가의다락방교회 창립자인 박장원 원로목사의 예교소드를 인용하며, “사명을 향해 외부 부흥회 집회에 가려는 목사를 막는 장로가 안에 걸려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일화”를



지오앤디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임진혁 목사는 “지금은 마지막 시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각성을 주문했다. ©기독일보

전했다. “사탄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십 년도 기다린다”며,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늘 성경

에 비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은 결국 패망으로 간다. 신앙은 영의 일이며, 성령님과의 긴밀한 동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만, 기도가 없었고 은혜가 체화되지 않아 결국 타락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어떤 이는 죄를 지을 때 경고가 생각나지 않았다 한다”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했다.

또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등에 사람들이 왜 너무 신경을 쓰고 있을까. 얼마전 한국의 어떤 톱스타의 스캔들이 ‘뺑’ 터지자마자 미디어에 그 연예인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왔다”며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생각을 쓰잘데기 없는 것에 쓰면 안된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나는 무엇에 예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것”이라며 “삼손은 여자를 가까이 해서 망했다.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 매사에 깨어서 주님과 붙어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멩 기자 → 2면에서 계속

美 유명 강해설교자 존 맥아더 목사, 86세로 별세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향년 86세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던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그의 설교 방송 사역단체인 ‘그레이스 투 유’(Grace to You)는 14일 저녁 공식 X 계정을 통해 “마음은 무겁지만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이자 교사인 존 맥아더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며 그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

신학자 오웬 스트래칸(Owen Strachan)은 “믿음의 사자여, 평안히 쉬소서. 이제 맥아더의 확고한 존재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낯섭니다. 그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를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겼다.

존 폴러턴 맥아더 주니어 목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5성 장군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와 먼 친척으로 1939년 6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LA퍼시픽 칼리지(현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이학 학사학위, 바이올라 대학교의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탈봇을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선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50년 이상 시무했다.

맥아더가 이끈 사립 기독교 학교인 마스터스 신학교는 “존의 리더십 하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두

차례 아침 예배는 3,000석 규모의 강당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 본문을 한 절도 빠놓지 않고 해석하는 강해설교”를 강조하며, 미국교회 강단에 본문 중심의 설교운동을 확산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평생 3,300편 이상의 설교, 400권 이상의 저술을 남겼다. 대표 저서인 ‘MacArthur Study Bible’은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부 이상 판매됐으며,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Strange Fire’ 등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혜진 기자

미주기독일보

YouTube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당일송금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나성서남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말씀 성회 노진준 목사 초청

회년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 시 2025년 7월 25일(금) - 27일(주일)

주 제 복음의 능력!

| | | | |
|---------|--------|--------------------------------|----------------------------|
| 집회일정 | 25일(금) | 저녁 7시 | “영생을 주셨다!” (눅 16:19-24) |
| | 26일(토) | 새벽 6시 | “낙심하지 않는다” (고후 4:1-4) |
| | | 저녁 6시 | “사명으로 살게 하신다” (요 18:33-38) |
| 27일(주일) | 오전 11시 | “나그네로 살라” (렘 29:5-7, 31:23-26) | |
| | 오후 1시 | 주제 세미나 | |



강 사
노진준 목사



담임목사
최권능
Rev. Kwon Nung Choi

www.kcswla.com
Youtube channel QR code

각자의 자리에서의 사역, 멘토링으로 하나 되다

7월 11일 오전 10시에 코너스톤 교회(이종용 목사)에서는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사역’ 결과를 보고하고, 이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모임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모임은 동료 멘토링에 관심이 많은 강태광 목사가 피어 멘토링의 원리를 적용해 새롭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유수 목사(우리 비전교회 은퇴)와 이보윤 사모가 경배와 찬양을 이끌었다. 이어서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 교회)가 기도하고, 월드쉐어 USA의 사순절 캠페인 준비위원장으로 섬긴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설교했다.

민경엽 목사는 역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처럼 역지로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며, 나침반 교회 성도들도 사순절 기간 기도와 금식, 헌신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다고 강조했다.



7월 11일(금) 오전 10시에 코너스톤 교회에서 월드쉐어 USA 멘토링 모임이 진행됐다. ©기독교일보

2부 사역 멘토링은 이인규 목사(기독교일보 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월드쉐어 USA 홍보이사장 이종용 목사와 후원이사장 객견섭 목사가 사역에 대해 나누었다.

3부 사역 나눔 시간에는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모든 참석자가 정해

진 순서 없이 추천 순서대로, 각자 자신의 사역과 삶, 선교 현장에 대해 나누었다. 민경엽 목사는 은퇴 후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내가 필요한 곳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매주 4일 정도 선원들을 대

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우규 목사(밸리지역 주안예교회)는 선교적 가정교회 형성 운동에 대해 나누었고 기독교일보 이인규 사장은 큰 교회와 미자립교회 매칭을 통해 3년간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위브릿지 사역을 소개하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사역을 지속해 왔다고 나누었다.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는 연합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비전이었다고 말했고, 이유수 목사는 1년 전 아내가 암선고를 받고,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 다섯 분의 목회자들과 공동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 전문 설치 업체 ‘BTS 솔라 디자인’의 폴 김 목사는 사업을 통한 수익은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쉐어 USA는 매년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씩 금식하고 그 식비를 선교지 후원을 위해 헌금하는 사순절 나눔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사순절 나눔 금식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수리남, 도미니카, 우크라이나 선교 및 복음화를 위해 사용됐다. 주디 한 기자

인랜드교회 제6대 담임목사 최원일 목사 청빙 확정

남가주 포모나에 위치한 인랜드교회(Inland Church)는 6일(주일) 예배시간에 실시한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결과 최원일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를 88.4%로 청빙하기로 확정했다.

최원일 목사는 지난 6월 22일 인랜드교회 주일예배에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방향을 점검하라”(히 12: 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믿음의 경주”(히 1:12)에서, 경주를 뜻하는 헬라어 ‘아곤’(ajgwn)에서 영어 단어 ‘agony’가 파생했다며,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믿음의 경주는 “결코 포

기할 수 없는 경주”라며 완주를 위한 세 가지 비결을 나눴다.

인랜드교회는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장로교 PCA 한인서남노회 소속이다.

최원일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순장반, 새순, 사랑의순례, 제자반을 섬기고 있다.

인랜드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전화: (909) 622-2324



LA북부 한인회가 7월 12일 박승목 회장, 김정석 이사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LA북부한인회

LA 북부 한인회, 박승목 회장·김정석 이사장 연임

LA 북부 한인회가 박승목 회장과 김정석 이사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7월 12일(토)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2027년까지 LA 북부 한인회를 이끌며 지역 사회 발전에 힘을 예정

이다. LA 북부 한인회 지역은 한인 사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한인회 이사 및 고문들 또한 대부분 한인 사회의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모범적인 리더십과 덕분에 LA 북부

한인회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LA 북부 한인회는 메모리얼 데이 페스티벌, 다문화축제, 추석 행사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며 주류 사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 1면 기사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에 이어서 “불붙고 높아지고 버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거창한 것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듬이 중요하다” 마지막 시대, 지금은 군사의 정신이 필요한 때

그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끝물”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사탄이 마

지막으로 흔들고 있는 시대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각자가 ‘개인 종말’과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 있는 이 시대에, 더 이상 방심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지인의 간증을 예로 들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3박 4일 수련회에 참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고 돌아왔다가,

집에서 마태복음 5장 말씀 한 구절을 읽다가 말씀이 번개처럼 들어와 변화되었다”고 했다. 이후 도박 딜러였던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목사로 살면서 몇 명을 천국으로 인도

했느냐’는 질문이 가장 두렵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한번 사는 인생인데 쓰임받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며 “세상의 화덕이 강하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댓가를 치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웹사이트: gondchurch.com/
지오앤디교회 주소: 3021 Blume Drive, Rossmore, CA 90720,
사무실: 10533 Progress Way Unit A, Cypress, CA 90630
문의: 714-745-8044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Hybrid

Blue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여름맞이 스페셜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한인 메카닉 서비스

한인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PH

PuenteHills

문선영 대표, “재정교육은 현실과 이상의 일치를 위한 것”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라’ 말하는 한국 부모 ...13살 성인식 때 자녀에게 씌드머니를 주는 유대인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썸머 캠프 7/30(수), 31(목)LA와 브레이서 개최

자녀와 마트에 갈 때마다 갈등을 겪는 부모가 있다. 부모는 세일 품목을 고르는데, 자녀는 가격은 안중에 없이 유기농 식품만 집는다. 특정 브랜드의 신발, 강아지 사료까지 유기농이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모가 고른 음식에 불만 없던 아이는, 틱톡과 유튜브로 온갖 소비 지식을 접한 이후 ‘기준’이 생겼다. 문제는, 소비 기준은 생겼지만 재정 감각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자녀의 재정 교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틱톡과 유튜브로 소비는 배우지만, 빚과 크레딧, 세금은 모른다. 미국의 10대 중 5명 중 1명은 기본적인 금융 이해조차 부족하다. 한인 커뮤니티는 어떨까? 높은 교육열, 뛰어난 지능에도 불구하고 재정 교육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가 있다.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Wise California Finance)의 문선영 대표는 한인 부모들도, 한인 자녀들도 재정에 대한 잘 모르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교육열도 높고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문 대표는 2015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정캠프를 시작했다. 팬데믹 때 잠시 공백기를 거쳐 올해로 8회째 개최되는 청소년 재정캠프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7월 30일(수) LA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오피스(에쿼터빌 빌딩 14층)에서, 7월 31일(목) 브레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695 Madison Way Brea CA 92821)에서 진행된다.

캠프의 대상은 틴에이지(13세-19

세)이지만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문 대표는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님의 참석도 적극 권유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같이 재정에 대해 알아야, 틴에이지들이 그들의 재정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려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캠프를 시작한 계기는?

“첫 번째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부모님들도 재정에 대해 모른다. 부모님이 모르니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나 한국 문화가 아이들에겐,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라’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부터 재정 교육이 필요한데, 부모가 하지 못하니 누군가가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키워서 의사시켰더니, 병원 소유주는 유대인이고, 변호사를 시켰더니 로펌 소유주는 유대인이 경우가 많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말씀대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한인들이 뛰어난 지능, 높은 교육열을 지니고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들었던 학생이 다시 들으러 오는 경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를 받는 이유는 무료로 했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 기념품을 나눠준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00이지만, 강의는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저희 모토는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가도 백만장자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이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빨리 시작할수록 백만장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기반을 갖추게 도와주는 강의이다.”

문 대표는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의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

해 설명했다.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하는 빚의 개념, 자산의 개념, 크레딧 카드 활용법, 크레딧 쌓는 법, 복리 저축 원리, 세금과 투자의 원리, 버젓팅,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많이 바뀐다. 빚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고, 용돈을 받으면 저축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텍스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에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저희가 부모님의 참석을 권유하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들어야 아이들이 재정적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캠프에는 투자 전문가, 뱅커, 재무 담당자, 재정 교육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내용이 재미있다고보니,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들도 끝날 때쯤 되면 집중해서 듣는다. 또, 아이들이니까 할 수 있는 엉뚱한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

재정관련된 일을 하리게 된 계기는?

“저도 돈에 대해서 몰랐다. 영화 평론을 전공하고 영화사, 영화 수입 배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인 재정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 본 적도 돈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영화 이론을 전공하고 영화 관련 전문가이니, 영화 관련 사업을 했던



문선영 대표(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기독교일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엉성한 비즈니스였다. 그러다 재정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를 알게 됐다. 그런 무지한 상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해 공부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한국교회 돈의문제를배척하는경향

문선영 대표는 자녀 세대에는 재정에 대한 관점이나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경에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포도밭을 잘 경작해야 재물이 쌓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우상화한다는 염려 때문에 재정 교육이 배제되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경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성도들의 재정 문제이다. 그런데 교회는 자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교회 본체를 세울 수 없다. 한국 교회에서는 자본이나 돈의 문제를 배척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관’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문 대표는, 2013년 처음 재정 세미나를 듣고 썼던 한국일보 칼럼을 인용하며 재정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처음 재정 세미나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 당시 ‘돈에 대해 배척만 하

고 비판만 할 줄 알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서, 제가 무책임한 어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내가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내 자녀 세대에서는 바뀔 수 있겠구나, 또 기독교 안에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씨앗을 뿌려야지 포도나무가 열린다. 포도나무를 준다 하더라도 경작할 줄 알아야 한다. 많은 크리스천 고객들이 오셔서 미래 소원이 선교라고 하신다. 그런데 선교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계신다. 그냥 막연히 그분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만한 노력을 할 것이다. 누구는 준비해도 되고, 누구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재정 관리는 현실과 이상의 일치를 위한 것

문 대표는 마지막으로, ‘재정관리’는 현실과 이상이 일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인데, 일어나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질문 열 개를 줬다. 여덟 번째 질문이,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많은 분이 선교라고 썼다. 열 번째 질문이, 지금 100만 달러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이었다. 그랬더니, 세계 여행이든지, 집을 사겠다고 답했다. 여덟 번 째 질문의 답변과 일치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재정관이 없으면, 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당장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게 된다. 본인이 소망하는 것은 선교인데, 100만 달러가 주어진다면 세계여행이나 집을 사겠다고 한다는 것이 대개 아이러니하다.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는다. 그것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교육이 잘 들어가야 한다.”

주디 한 기자

등록 문의: 626 827 9599, symoon-moneytalk@gmail.com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부제: 교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삼대 동일 신앙 세우기

삼대 동일 신앙 목회 세미나 (신6:2)

2025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강사: 김경윤 총장

강의시간 안내

오전 10:00 ~ 12:00 삼대가 함께한 세대 통합 예배
오후 12:00 ~ 1:00 점심시간
오후 1:00 ~ 2:45 삼대의 기본 튼튼 신앙 세우기,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오후 2:45 ~ 3:00 Break time
오후 3:00 ~ 4:00 3년 커리 만들기

■ 날짜: 2025년 **7월 28일(월)**
■ 장소: LA소망선교교회(김영호 담임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등록: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주최: 미주 기독교일보, 미주 3대 동일 신앙 연구소(Three Generations Same Faith Research Center in USA)
문의: 김영호 목사(213-590-9885), 김갑선 목사(213- 407-4524), 기독교일보(213-434-1170)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추억의 무대

“어제의 이야기와 오늘의 웃음이 만납니다.”

무성영화 변사 영화제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문의연락처
월 - 금 / 9AM - 5PM
888.847.3098



이시대 마지막 변사
최영준



천재 개그맨
엄영수

〈홍도야 울지마라〉 & 〈검사와 여선생〉 / 〈엄영수 개그 쇼〉

2025년 8월 5일 & 6일

CGV BUENA PARK at THE SOURCE OC

6988 Beach Blvd, Suite B301, Buena Park, CA 90621

3회 공연 중
1회만 선택 가능

8월 5일(화) 오후 7시
1부: 홍도야 울지마라
2부: 엄영수 개그 쇼

8월 6일(수) 오후 2시
1부: 검사와 여선생
2부: 엄영수 개그 쇼

8월 6일(수) 오후 7시
1부: 홍도야 울지마라
2부: 엄영수 개그 쇼

주관

SINCE 1990
문화기획 에이콤
ART COMMUNICATION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원 1인당 1장만 수령 가능합니다 (한 공연 시간)



이승만은 왜 기독교 기반으로 국가 세우고자 했나?

김철홍 교수, 한국교회사학연구원 세미나서 고찰

김철홍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신약학)가 10일 서울 서현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한국교회사학연구원 제316회 월례세미나에서 ‘우남 이승만의 기독교 개종과 기독교가 그의 정치사상에 준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1945년 11월 28일 조선기독교남부대회 주최로 ‘임시정부 요인 환영대회’가 열렸을 때 우남(粵南) 이승만은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고 말했다”며 “기독교를 기초로 하는 국가건설은 해방 이후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우남은 1899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래 줄곧 독립 이후 등장할 신생 국가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그런 점에서 우남은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정치사상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happen-to-be-a-Christian)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란 토양 위에 자신의 정치사상을 뿌리

내리고, 독립운동과 국가운영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고취하려고 노력했던 기독교 정치사상가, 기독교 정치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기독교 입국론’을 갖게 만들었는지, 그의 기독교로의 개종 과정 등을 살피며 고찰했다. 김 교수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남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정교일치의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를 국민 교화의 근본으로 삼는 세속국가였다’”며 “그가 주목한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인간 교화(敎化)’의 가능성이었다. 법과 제도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정신의 혁명을 경험한 새로운 인간 없이는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남은 기독교적 정신 혁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혁명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개신교의 정치적 표이었기 때문”이라며 “우남이 생각한 정신의 혁명은 현대어로 옮기면 ‘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스틸컷 속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세계관의 전환”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생겨나는 인간의 내면의 변화이며, 그것은 곧 관점의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다. 관점의 변화는 정치적인 면에서 그 개인이 독립적인 자유인으로서 각성하여 자유·민주 시민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며 “교회가 그런 개인을 양산(量産)해내지 못한다면 신생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

았다”고 했다.

그는 “우남은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자유가 종교개혁을 거쳐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기초가 된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기독교가 앞으로 독립할 국가에 잠재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의 결론부에서 “현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단순히 기독교를 받아들여 생겨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는 매우 ‘미신적인’ 설명에 머물러 있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 우남이었다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기독교의 관계를 아마 아래와 같이 설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는 자유인(自由人)을 가르치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자유인의 개념에서 자유의 이념(자유주의)이 생겨났고,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만들어 변영한 국가를 이룬 미국처럼 우리도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주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법치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생겨난 이윤은 즉각적인 물질적 만족을 위해 소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로 연기하면서 근검하게 사는 기독교적 생활패턴, 법의 요구를 상회(上廻)하는 높은 기독교적 도덕 기준 등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김진영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외친 “中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14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 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작년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탄압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문제시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강제송환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서 국제 인권단체들과 각국 정부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강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합

로 북한으로 송환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게 된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강제 송환의 위협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특히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

후 약 600명의 탈북민이 강제로 복송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는 자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근거로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강제송환이 가능하다고 주장

한다”며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송환을 정당화한다. 1998년에 체결된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협력 협정’에서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통해 송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법, 특히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그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 협약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

들 국제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불송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송환된 탈북민이 고문이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북한과의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송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_mmission of Inquiry, COI)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COI는 중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송환이 북한에서의 고문, 처벌, 심지어 사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은 강제 송환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며,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처벌의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북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북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북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 | | | | | |
|---|--|---|--|---|---|
|  <div>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
|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div> |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
|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Theological Studies</div> |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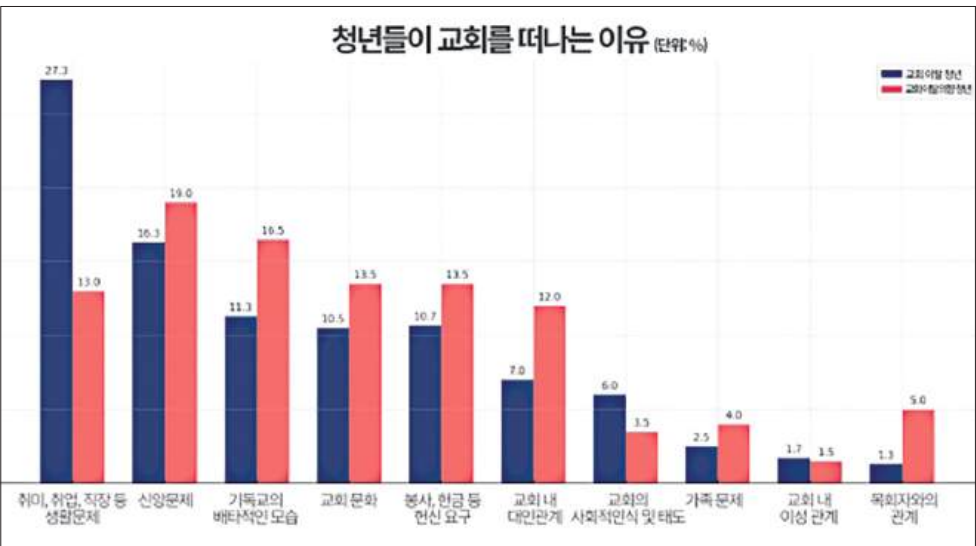
“교회 떠난 청년 절반, 현재는 무종교”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 15일 ‘청년부흥: 진단과 대책’ 포럼 개최

지난 15일 대전 판암장로 교회(담임 홍성현 목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소장이국진 목사)가 개최한 ‘청년부흥: 진단과 대책’ 포럼에서는 청년층의 교회 이탈 실태와 그 배경, 그리고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이 데이터로 공유됐다.

조사 결과, 이미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생활 문제’(27.3%), ‘신앙 문제’(16.3%), ‘배타적인 기독교 정서’(11.3%) 등을 이탈 사유로 꼽았다. 반면 교회 이탈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신앙 문제’(19%), ‘배타적인 기독교 정서’(16.5%), ‘교회 문화’(13.5%), ‘봉사·헌금 등 헌신 요구’(13.5%)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떠난 청년들의 현재 신앙 상태는 심각하다. 교회 이탈 청년의 51.3%는 무종교인으로 전환됐고, 27.3%는 타종교로 개종했으며, 21.3%는 ‘가나안 성도’(교회는 떠났지만 기독교인 정체성을 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 가정의 종교는 기독교 가정이 46.3%로 절반에 육박해, 신앙 전승의 부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 설문 자료를 토대로 만든 그래프.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

재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신앙 문제’의 세부 양상을 보면, 이미 떠난 청년 중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비율은 52.3%, ‘확신 없는 신앙’은 48.0%, ‘구원에 대한 의구심’은 41.0%였다. 교회를 떠나길 고민하는 청년들도 ‘종교에 대한 회의감’(65.0%)과 ‘확신 없는 신앙’(61.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정체된 신앙 성장’(53%)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았다.

교회 이탈 청년 가운데 현재 기독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에 불과해, 10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구원 확신이 없는 교회 이탈 청년들에게 과거는 어땠는지 물었을 때 48.5%는 과거에도 확신이 없었다고 답했다. 과거에 구원 확신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24.8%에 그쳤다.

또 교회 이탈 의향 청년 중에서는 34.4%는 과거엔 구원 확신이 있었다고, 43.8%는 과거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이탈 청년과 이탈 의향 청년들 가운데 애초부터 신앙적 기초가 부족했던 이들이 점차 교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에서 목회데이터연구

소 지용근 대표는 “조사 대상 청년의 45% 가까이가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면서도 “그러나 가족이 마지막 신앙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신앙 대화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특히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혈육 가족이 없더라도 교회가 공동체로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정기적인 관계 형성 소그룹과 멘토링, 신앙 동반자 제도 등을 통해 이들이 외롭지 않게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년 예배로 이동한 청년이나 2030세대가 조용히 거리를 두는 징후는 이탈의 전조 현상이라면서 이를 민감하게 포착해 신속히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영성 훈련과 체계적인 복음 교육으로 신앙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 청년 다수는 신앙 자

체를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가나안 성도로 남는 경향이 많다”며 “단순히 ‘교회로 다시 오라’고 외치기보다는 SNS 콘텐츠나 온라인 소그룹 등으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탈 방지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출석 패턴 변화, 소속감 약화 등 초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가족과 담임목사까지 연결하는 전문 상담과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총신대학교 양현표 교수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교회의 부흥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교회 신뢰도도 낮은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세대의 교회를 떠나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만큼, 교회가 청년 친화적 공간과 사역을 과감히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신일 교수는 “이번 조사는 이탈 의향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포괄해 교계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청년들의 신앙적 혼란을 공감하고 합리적 사고와 조화를 이룬 돌봄으로 복음을 다시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나이지리아 풀라니 무장세력, 기독교인 5명 살해·110명 납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두나(Kaduna)주 카주루(Kajuru) 지역에서 무장한 풀라니(Fulani) 유목민들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또다시 잔혹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경, 풀라니 무장 세력은 캄파니(Kampani) 마을의 복음주의교회(ECWA)에서 진행되던 성경공부 및 기도회 도중 기습 공격을 벌여 5명을 살해하고 3명을 중상시켰다.

CDI는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카주루와 인근 카치아(Kachia) 지역의 많은 마을은 매일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집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농사조차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0건 이상의 납치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피해 지역은 대부분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바우다(Bauda),

웅그완 야시(Unguwan Yashi), 웅그완 물키(Unguwan Mulki), 마키알리(Makyali), 웅그완 무디 도카(Ungwan Mudi Doka), 웅구와 로고(Unguwar Rogo) 마을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8일 새벽 1시경에는 바우다 마을이 급습당해 쿠파나(Kufana) 구역장 오바다이하 이구다가 납치됐다. 지역 대표 스티븐 마이코리는 “이 같은 폭력은 주민들의 일상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이 사건은 수많은 납치와 살해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 12일 새벽에도 웅그완 야시, 마키알리, 웅그완 무디 도카 3개 마을에서 총 10명이 납치됐다. 마이코리는 “웅그완 야시에서는 6명이, 마키알리에서는 2명의 여성과 2명의 총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웅그완 물키에서는 복음주의교회 소속 목회자가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

날 하루에만 38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됐으며, 8명은 탈출했지만 30명은 여전히 억류 중이다.

이어 3월 10일에는 부다(Buda) 마을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61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됐고, 1월 18일 아가마(Agama) 마을에서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주민들이 납치됐다. 이들에 대한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웅구와 로고 마을에서는 교회 건물과 기독교인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탔다. 주민 자마니 이샤쿠는 “이 같은 공격은 새해 첫날부터 계속돼 왔다”고 증언했다. 주민 이샤야 온누심은 “무장 풀라니 세력이 교회를 약탈하고 목사관까지 불태웠다”며 “농산물과 재산을 약탈한 후 6채의 주택도 파괴했다”고 전했다. 주민 조나도도는 “정부가 이런 잇따른 공격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깊은 분노를 나타냈다.

영국 의회 산하 국제종교자유소위

원회(APPG)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풀라니는 수백 개 씨족으로 구성된 수백만 명 규모의 무슬림 공동체로, 일부는 급진 이슬람주의 이념에 동조해 보코하람(Boko Haram)이나 ISWAP(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의 전략을 모방하며 기독교인을 노리고 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공격이 단순한 종교 박해를 넘어, 사막화로 생활 기반을 잃은 풀라니들이 기독교인 토지를 강제로 점거하고 이슬람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5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순교하는 국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사망한 4,476명의 기독교인 중 3,100명(69%)이 나이지리아에서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반기독교 폭력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북중부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풀라니 민병대가 농촌 지역을 습격해 다수의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보코하람과 ISWAP 등 지하디스트 세력이 활개를 치며 납치, 성폭행, 기독교 마을 습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몸값을 노린 납치도 증가 추세다.

여기에 더해 북서부 지역에서는 라쿠라와(Lakurawa)라는 새로운 지하디스트 무장 단체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자마아 누스라트 알이슬람 왈무슬리민(JNIM)과 연결돼 있으며, 첨단 무기를 갖추고 급진 이슬람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오픈도어즈는 나이지리아를 2025년 세계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7위로 분류했다.

최승연 기자



CONGRATS, GRADUATES!

| | | | | | |
|--------------------|-----------------|------------------------|---------------|------------------------|---------------------------|
| APU | MICA | RUTGERS | UC BERKELEY | UCI | U OF I URBANA |
| BIOLA | MOUNT ST MARY'S | SANTA CLARA UNIVERSITY | UC DAVIS | UCSD | UNIVERSITY OF PITTSBURG |
| BOSTON UNIVERSITY | NORTHEASTERN | SCAD | UC MERCED | UCSB | U OF M TWIN CITIES |
| DREXEL UNIVERSITY | NYU | ST LAWRENCE UNIVERSITY | UC RIVERSIDE | UCSC | U OF WASHINGTON |
| FORDHAM UNIVERSITY | PARSONS | SYRACUSE | UC SANTA CRUZ | U OF ARIZONA FLAGSTAFF | UNIVERSITY OF THE PACIFIC |
| LMU | PEPPERDINE | TEMPLE | UCLA | U OF I CHICAGO | VIRGINIA TECH |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이란 기독교 개종자 유럽 밀입국 실패해 체포돼



▲이란 기독교 개종자 메흐란 샴루이. ©Article18 제공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탈출했던 남성이, 터키(튀르키예)에서 추방된 직후 본국에서 체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은 중동 지역 종교 자유 단체인 ‘미들이스트컨선’(Middle East Concern)을 인용해 “메흐란 샴루이(Mehran Shamloui·37)가 올해 초 이란을 떠난 뒤 유럽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Mashhad)로 강제 송환됐고,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이란 보안 당국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샴루이는 2024년 11월, 기독교 가정대상 동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바스 수리(Abbas Soori·48), 나르게스 나스리(Narges Nasri·37) 등과 함께 체포됐다.

당시 이란 정보부 요원들은 성경, 십자가, 찬양 악기 등을 압수했고, 세 사람은 테헤란 에빈교도소 209년 독방에 각각 수감돼 심문을 받은 뒤 2024년 12월 각각 2만 달러 이상을 내고 보석됐다.

이어 지난 3월 8일, 이슬람 법에 반하는 선전 활동(징역 8년)과 반정부 단체 가입(징역 2년 8개월) 혐의 등으로 테헤란 혁명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8개월

과 벌금 2,500만 토만(약 275만 원), 사회 권리 박탈 11년(취업, 의료, 교육)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2월, 테헤란 혁명법원 26지부는 이슬람 형법 499 조항, 500조항, 500-bis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열었다. 이는 종교적 개종, 체제 비판, 반정부 활동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법률이다. 세 사람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나스리는 임신 중이었으며, 이슬람에 반하는 선전 활동(10년), 반정부 단체 가입(5년), 국가에 대한 선전 활동(1년, 여성·생명·자유 운동 지지 발언 관련) 등 총 16년형과 함께 테헤란 출입 및 출국 금지 2년, 사회 권리 박탈 15년의 처분도 받았다. 압바스 수리는 징역 15년형과 사회 권리 박탈 15년 처분을 받았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바나바스 에이드’(Barnabas Aid)는 “세 사람이 4월 26일 테헤란 항소법원 36지부로부터 기각 통보와 함께 5일 이내로 자진 입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한편 샴루이가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던 에빈교도소는 지난 6월 23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수감자 다수가 타 교도소로 이송된 상황이며, 그의 최종 수감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명단에서 9위에 올랐다. 특히 이란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돼 체포, 고문, 사회적 배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 기독교 개종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강혜진 기자

호주 기독교 인권 단체, 성소수자 정책 인용했다는 이유로 차별 조사

호주의 대표적인 기독교 법률 인권 단체인 호주기독교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ACL)가 녹색당의 젠더 정책을 인용한 전단지 배포했다는 이유로 테즈메이니아주 반차별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가 보도했다.

ACL의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 대표는 7월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녹색당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 피어스 대표는 “호주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우리는 그 증거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ACL의 ‘범죄’는 “정치인이 약속한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은 5월 3일 호주 연방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이 공식 발표한 젠더 관련 정책을 그대로 인용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전단지에는 “성별확정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 접근을 보장할 것”, “메디케어에 성별확정 의료를 항구적으로 포함시킬 것”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ACL은 6월 말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공식 정책을 인용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공유하는 것이 조사 대상이 된다면, 호주의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위협에 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어스 대표는 ACL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의료 처치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때문에 우리는 ‘불쾌감을 주고, 모욕하며, 위협하고, 조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는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에서 전문가들의 우려에 따라 성전환 의료가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핀란드주도 관련 치료를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호주 가정법원은 멜버른의 왕립아동병원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이념을 앞세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성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이 충분한 판단 없이 치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한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어스는 “한편, 테즈메이니아는 거꾸로 된 십자가와 사탄극을 포함한 축제를 공공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호바트 시내에 거꾸로 된 십자가를 설치한 다크 모포(Dark Mofo) 축제를 겨냥한 발언이다.

피어스는 지지자들에게 ACL이 종교 자유를 수호하는 다양한 싸움에서 승리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도,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피어스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재스민 서섹스는 ‘남성은 모두 수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추방되고 심판에 회부됐다. 질리언 스펜서 박사는 청소년 성전환 치료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트랜스포비아 혐의로 직무 정지됐다. 라일 셀턴은 드랙퀸 동화 읽기 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5년 동안 법정에 서야 했다.”

그녀는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 메시지를 “말하면, 대가를 치른다”(Speak up, pay up)로 요약하며, 절차 자체가 곧 처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법률 비용이 뒤따른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피어스는 ACL이 과거 학교 사목제도 수호, 신앙 기반 학교 보호, 학부모 권리 보장을 위한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에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새벽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에배 1부 오전 8:15
주일에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에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에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에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에배 1부 오전 9: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금요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에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주일새벽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 오전 6: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중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구국대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간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정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창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금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토) (토/주일) 새벽 6:00
(월-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령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20명 사망한 텍사스 홍수, 그리스도인의 해석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슈아 아놀드 작가의 기고글인 ‘텍사스 홍수는 왜 발생했는가?’(Why did the Texas floods happen?)를 1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조슈아 아놀드 작가는 워싱턴 스탠드의 선임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스와 논평에 모두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 중부에 발생한 참혹한 홍수로 인해 최소 12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28명은 어린아이들이었다. 힐컨트리 지역에 약 30cm 가량의 폭우가 내린 뒤, 과달루페 강(Guadalupe River)은 단 45분 만에 8미터 가까이 불어나 강가의 피서객들과 여름 캠프 참가자들을 덮쳤다. 그중 한 곳인 기독교 여성 캠프 ‘캠프 미스틱(Camp Mystic)’에서는 캠프 책임자를 포함해 27명의 참가자와 지도자가 목숨을 잃었다.



조슈아 아놀드 작가. ©washingtonstand.com

각각의 죽음은 인생의 선물을 산산조각 내는 비통한 비극의 외침이며, 살아남은 이들을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하며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쉽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믿음을 깊게 하며, 슬픔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한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찾는 이유는, 그것이 오류 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계시의 말씀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은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텍사스 홍수 같은 재앙이 발생하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설명한다(로마서 5:12, 참조: 창세기 2:17, 3:22). 인류의 죄는 전 우주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로마서 8:22). 고대 세계를 몰로 심판하신 것도 “사람의 최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신 결과였다(창세기 6:5, 17; 베드로후서 2:5 참조).

하지만 “죄 →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연결이, 모든 개인의 죽음이 특정한 개인의 심각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두 차례나 명확히 부정하셨다. 누가복음 13:2-5에서 예수님은 집단 재난의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9:3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구체적인 설명,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리킨다. 이 주제는 매우 깊고 복잡해서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권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며, 그 차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9).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몇 가지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계시되었다. 그것은 곧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성품이라는 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인간이 악하게 의도한 일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증언한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창세기 50:20)고 말했다. 바울은 이를 더욱 확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로마서 8:28)고 보증한다. 그 ‘모든 것’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마서 8:35)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자비롭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놀라운 점은 일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반역자, 곧 모든 인류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원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로마서 9:16). 심지어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자비의 언약을 세우셨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9:11). 이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 즉 하늘을 향해 활이 겨눠진 형태이다 — 전쟁의 무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다.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섭리의 목적을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설명하실 의무도 없으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로마서 9:20). 욥의 경우, 고난의 시작에 대한 하늘의 장면(욥기 1-2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욥에게 직접 설명하시지 않으신다.

이러한 제한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게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설명되지 않은 고통과 마주하며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신앙 범주인 탄식(lament)을 배운다. 탄식은 시편 곳곳에서 발견되며, 예레미야애가 전체를 관통하고, 선지서들에도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탄식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아뢰고, 말씀을 통해 그 고통을 해석하며, 주의 개입을 요청하고, 그분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기도이다(참조: 마크 브루에고프의 『Dark Clouds, Deep Mercy』).

탄식은 반드시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4).

천 년 전 다윗도 같은 원칙을 노래했다. 백악관 신앙자문실이 이번 텍사스 홍수에 대해 발표하며 인용한 말씀이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편 34:18).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이들에게 이 같은 신학적 반추가 별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에 닿는 쓰라린 연고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운유하고 낮은 목자는 그 고통을 아시고 함께하신다. 때로는 그 쓰라림이 가장 필요한 치료제가 되기도 한다.

1873년, 네 딸을 대서양 횡단 여객선 사고로 잃은 시카고의 사업가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이렇게 썼다. “평화가 강물처럼 내 길을 인도하고, 고난이 물결처럼 몰아쳐도 나의 모든 형편 속에서 주께서 가르치셨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거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슬픔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美 개신교 교회,예배 중 ‘헌금바구니 돌리기’가 가장 일반적



©Pixabay

미국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 여전히 예배 중 헌금 바구니나 접시를 돌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헌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는 최근 미국 개신교 목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약 4분의 3은 예배 중 헌금 접시나 바구니를 돌려 실물 헌금을 모은다고 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교회는 예배 전 후에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예배 중 헌금 접시를 돌리는 것으로, 전체 목회자의 64%가 이를 주된 헌금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출석 인원이 50~99명인 중소형 교회의 경우 이 비율은 68%로 더 높았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대표는 “많은 교회가 디지털 헌금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예배에서 헌금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교회는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헌금 방식을 둘러싼 교단 간 차이도 눈에 띈다. 루터교회와 감리교회는 헌금 접시를 돌리는 비율이 각각 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장로교/개혁교회(65%), 침례교(64%), 오순절 교회(61%), 회복주의 운동 교회(43%), 비교단 교회(36%)였다. 복음주의 교회보다 주류 교회가 헌금 접시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교회 목회자의 74%는 헌금 접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지만, 복음주의 목회자는 60%에 그쳤다. 인종별로는 흑인 목회자의 76%가 이 방식을 선호해 백인 목회자(63%)보

다 높았다. 예배 종료 시점에 헌금을 돌리는 교회도 있었다. 전체 목회자의 10%가 이에 해당하며, 침례교 목회자는 1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루터교는 6%에 불과했다. 예배 후 헌금은 교인 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교회에서 가장 드물게 나타났다는데, 단 6%만이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헌금 접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입구나 출구에 설치된 헌금함(헌금 박스)이다. 전체 목회자의 40%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복음주의 교회(45%)가 주류 교회(30%)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 교회가 48%로 가장 높았다.

비교단 교회는 헌금함 설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침례교(43%), 오순절 교회(41%), 장로교/개혁교회(40%), 루터교(32%), 감리교(23%)가 이었다. 젊은 목회자일수록 헌금함을 선호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45세 미만 목회자의 46%는 헌금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는 예배 종료 시 성도들이 나갈 때 헌금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답했다. 예배 종료시 헌금하는 방식은 대형 교회에서 더 흔했으며, 출석 인원 250명 이상 교회의 25%, 100~249명 교회의 20%가 이 방식을 사용했다.

맥코넬 대표는 “헌금함은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헌금을 독려하는 방식”이라며 “일부 교회는 다른 방식과 병행해 사용하고, 다른 교회는 죄책감이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오직 헌금함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실물 헌금이 여전히 주류인 가운데, 디지털 헌금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경 기자

스페인 종교자유 단체, EU에 ‘기독교 혐오 대응 특별조정관’ 신설 촉구

스페인의 한 종교자유 옹호 단체가 유럽연합(EU)에 기독교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정관(Special Coordinator)’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스페인 종교자유관측소(OLR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성명을 보내 유럽 내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혐오 대응을 위한 기존 전문직과 동등한 수준의 기독교 혐오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리아 가르시아(María García) OLRC 대표는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다른 형태의 종교적 혐오에 맞서 보여준 노력과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기독교 혐오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대표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유럽 내 기독교인 차별 및 혐오를 추적하는 국제단체인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관측소(OIDAC Europe)’의 2024년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35개국에서 총 2천4백44건의 기독교 혐오 범죄가 보고됐으며, 이 중 232건은 괴롭힘, 위협, 물리적 폭행 등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OLRC는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OLRC는 “최근 몇

주 사이에 파리 성심 바실리카 제단에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를 외치며 난입한 사건,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발생한 교회 방화 사건, 로드가우에서는 십자가를 흉기로 사용한 성당 보좌 사제 공격 사건 등 충격적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전했다.

OLRC는 특히 2023년 1월 25일 스페인 알헤시라스에서 발생한 보좌 사제 디에고 발렌시아 콘트레라스(Diego Valencia Contreras)의 피살 사건을 강조했다. 그는 테러범 야신 칸자(Yassin Kanza)에 의해 산 이시드로 성당 밖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지난해 11월 9일, 발렌시아 인근 수도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수도원에 난입해 76세 수도사를 살해하고 여러 수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2023년 OLRC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내 예배당과 기독교 상징물에 대한 공격은 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시아 대표는 “이러한 살인과 교회에 대한 공격 앞에서 유럽연합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른 종교적 혐오에 맞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수준의 헌신으로 대응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OLRC는 유럽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청원에 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출)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출)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아기도회) 오후 7:30 한아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목요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रेस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배변은 숙련제거와
먹으면서 제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어머님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대한민국 청년을 살리는 미국 대륙 횡단 선교 프로젝트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국 대륙 횡단 프로젝트 'CALL 2025'가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28박 29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목사)가 주최하고, 미국 각 지역의 후원회와 교회, 기업, 개인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참가자는 약 60~120명 규모로, 대한민국 청년들로 구성됐다. 참가자 중에는 크리스천은 물론 비기독교인, 탈북학생 등도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아칸소, 일리노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뉴저지를 지나 뉴욕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감람산 기도원에서 시작된 남가주 일정

7월 10일, 북가주에서 출발한 청년들이 LA 감람산 기도원에 도착하며 CALL 2025의 첫 남가주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장 10시간에 이르는 사막길을 지나 도착한 청년들은 붉게 물든 돌산과 장엄한 일몰 앞에서 감탄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동의 순간을 나눴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는 청년들을 따뜻하게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국 대륙 횡단 프로젝트 'CALL 2025'가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28박 29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 남가주 교협

맞이하며, 바비큐와 김치로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식사 후 간증 시간에서는 샘신 목사가 복음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고, 참가자들은 경청하며 진지한 질문과 나눔을 이어갔다.

샌디에이고부터 나성영락교회까지 이후 방문단은 샌디에이고 Sea World 탐방, 은혜한인교회 예배 참석, 나성영락교회 청소년들과의 교제 및 예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미서부 지역 일정은 남가주 교협과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고, 은혜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샘커뮤니티교회, 갈보리선교교회, 평화교회, 주님의손길교회, 아

메리카연합재단,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등 여러 교회와 단체가 협력해 진행됐다. 이들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숙소, 식사, 차량 등의 섬김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여정을 전폭 지원했다.

남가주교협은 "이 모든 사업이 가능하도록 헌신해주신 스태프들과, 버스 렌트를 위해 약 4만5천 달러를 후원해주신 후원자,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주신 개인과 교회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섬김과 후원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디 한 기자 문의: 남준 joon@gemgem.org 714-710-2674, 심혁태 hyuktae@gemgem.org, 630-200-5965

교회 단신

▶ 구영순 독창회 미주평안교회 7월 19일(토)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이스라엘선교회 주최로 구영순 독창회가 열린다.

▶ 선한목자교회 7/20(주일) 창립 50주년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7월 20일 주일 오후 4시, Chino Hills 본당에서 창립 50주년 감사예식을 진행한다.

▶ 충현선교교회 설립 40주년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는 설립 4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개최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예베소서 6:10-13)를 주제로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담임목사가 18일(금) 저녁 7시 30분, 19일(토) 새벽 5시 20분과 저녁 7시, 20일(주일) 예배를 이끌게 된다.

▶ 은혜한인교회 위심 컨퍼런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7월 18일(금) 금요 성령 집회, 19일(토) 오전 9시-오후 8시, 20일(주일) 4부 예배 때 조승현 목사(뉴웨이교회 담임), 심음보 전도사를 초청해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주제로 위심 컨퍼런스를 연다.

▶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웨스트민스터 성경해석학 교수진과 함께 제9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개최한다.

▶ 동양선교교회 55주년

동양선교교회가 7월 27일 창립 55주년을 맞는다. 7월 27일(주일) 1부 예배(오전 7:30), 및 2-3부 연합 예배(오전 10:30)를 드린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제자도의 시선에서 바라본 고난>이며 7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전 6시, 20일(주일) 1-4부 예배 때 진행된다.

▶ 사랑의 빛 선교교회 부흥회

8월 8일(금)-8/10(주일)까지 '갈망, 주를 향한 목마름'을 주제로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를 초청해 본당에서 부흥회를 연다.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7시, 주일 1-3부

▶ 살롬합창단 단원 모집

살롬 합창단(단장 조영원, 지휘 김현정)이 단원을 모집한다. 단원은 매주 목 오전 11:00-오후 12:30 까지 가든그로브 OC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 모여 연습한다. 문의: 조영원 단장(714-351-4499)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 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구봉주칼럼

양육(養育)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양육이라는 단어는 육아양육이라는 표현처럼, 신생아와 같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청년 또는 장년에게는 양육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20세가 넘으면, 스스로도 다 자랐다,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할지 몰라도 돌봄을 받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돌보아 준다” 혹은 “양육하고자 한다” 하면 겹언쩍어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양육이라는 단어는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듣고 살아야 할 용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인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의 육신의 성장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앙양육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이미 어엿한 목회자가 된 디모데를 여전히 영적으로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를 직접 만나고 싶었으나,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사도 바울은 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어, 권면하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러한 권면과 훈계가 담긴 성경이 바로 디모데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며 돌보았는지, 당시 위장이 좋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까지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바울의 서신서들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편지임과 동시에 특정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개인적인 권면을 편지에 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양육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성장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 설교자나 개인이 선호하는 사역자들의 설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편협적이어서, 본인이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누군가의 하는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요점과 취지가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과 부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설교를 접하며,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가르침과 선생을 찾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같은 분들의 설교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협력자의 역할을 할 뿐, 사실상 배우는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양육은 내가 몰랐던 부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일깨워주고 설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는 엄하게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양육은 계속적인 지지와 호응 등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음을 깨닫

는 절필과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떨림이 공존하는 고도의 영적 성장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신앙적 가르침은 자신의 취향, 사육을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듣기 싫으면 그만 듣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양육을 경험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양육에는 일방적인 가르침을 드는 것보다 아버지나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격려와 위로 배움을,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생기는 생체기를 통해 강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권면과 조언, 소그룹 목자의 돌봄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양육되고 있습니까? 양육되어,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면서도 동시에 양육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코 흘리고 주위를 어지럽히는 영적 어린아이는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 평생 양육 받아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유철 칼럼

하나님의 목적, 동행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우리들의 신앙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1/4 정도가 앞으로 되어 질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보다 무려 8배 정도나 많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구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재림에 대해 20여 차례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50여 차례나 재림에 대해 가르쳤고, 신약성경에만 재림의 메시지가 318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

서”(계22:20) 재림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재림을 믿는 올바른 휴거믿음은 ‘D-day’보다 예수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아직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림에서도 ‘D-day’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학교 시험일, 회사 면접일, 여행 계획일 등 ‘D-day’가 중요하듯이 성령을 받기 이전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언제인지, ‘D-day’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대답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1:7) D-day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3친구가 풀무 불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풀무불속에서도 동행하셔서 웃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 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역사의 타이밍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회당장야이로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집에 오시기를 바랐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

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 때, 상처 받기 전이나 절망하기 전이 하나님 역사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망보다 크신 분이로 어떤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내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발을 묶고 뛰는 경기를 잘하려면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역사의 주관자로 내가 주님께 맞추면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우리는 이것을 ‘Not I, But Christ’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 본능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목적, 주님과 동행을 잘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하늘바라기

나의 별 - 김은주

한공간이 있다
시간의 공간이 있고 관념의 공간이 있으며
영적 공간도 있다
나는 그 공간을 안드로메다라고 부른다
나의 심의 안식처인 듯 하다
때로는 그 공간을 나의 별이라 지칭한다
나의 별에는 인자한 분이 계신다
한없이 미소 짓고 안아 주시는 분이이다
때때로 나는 별을 찾는다
슬플 때도 찾고 기쁠 때도 찾고 소망할 때도 찾는다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 주시며 소망할 때
비전을 주신다
나는 그 별을 참 좋아한다
아니,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사무치도록 그림다
사랑하는 나의 공간은 다른 친구도 초대하고 싶다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
하늘 위의 하늘과 하늘의 공간이다
맑은 눈과 마음으로부터 갈 수 있는 곳이다
오늘 하루를 내려놓고 잠드는 이 순간
나의 별을 찾아간다...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극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의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항 20회 (혈액순환)
- 훈욕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김영한 칼럼

예수 죽음의 의미 – 대속(代贖)의 죽음(VI)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5. 예수 죽음의 독특성: 음부(陰府)와 대결하심
예수의 죽음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체제에 순응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조용히 죽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같지 아니했다. 예수는 구약성경의 족장들(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처럼 천수(天壽)를 다하고 평온히 죽지 아니하였고, 하나의 노예 내지 흉악범 같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실상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 예수는 그처럼 신뢰했던 아버지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는 데 대한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셨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평온했고, 죽은 뒤에는 그것으로 끝났고 아무 것도 없이 그의 삶은 종결되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의 경우 그를 순식간에 미화하여 전 국민의 영웅으로 만드는 이상한 국민감정이 일어났다. 심지어 기독교 진보주의 목회자들은 그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같이 다루면서 많은 신앙적 혼선을 가져왔다. 실상, 노무현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전직 지도자의 절망적인 현실도피요 자살이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

발전을 위해 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모방 자살을 부추긴 것이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전직 지도자가 자살하는 불안정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2009년 6월 18일 개신교 진보주의 목사 1,024인 시국선언에는 “부영이 바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뵙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 숭실대 대학원장이요 한국교회법 연구원장인 김영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부영이 바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은 자살의 흔적이다”고 양자를 구분하였다. 투신자살한 자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이나 형사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형사 피의자의 신분이었는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자살한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 1,024인 시국선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원로 장로인 김영훈은 “만약 비성경적 내용의 시국선언을 끝까지 고수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골고다의 언덕의 피와 부영이 바위의 피는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하나님 아들이 흘린 인류대속을 위한 희생의 피나, 후자는 일개인이 자처한 연루된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피다. 전자는 인류의 대속을 가져 왔으나 후자는 기소 중지를 통하여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안전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예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예수는 음부(Gehenna, hell), 죽음의 세계에까지 내려가셨다. 어느 인간도 실제로 하지 못한 일을 하신 것이다. 예수는 음부의 세계에서 죽음과 대결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음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음부는 그것이 더 이상 자기 권세 아

래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토해낸 것이다. 아들은 그 본성에 있어서 불가사적(不可死的)인 하나님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는 죽음을 죽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죽음에 관하여 다음 같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전 15:55-56).
6. 속죄제물이자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제자들에게 종교를 남겨두지 아니했다. 그가 제자와 추종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의 승천 후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십자가에 달린 예수)을 전파하였다.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 그의 십자가 죽음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나타났다. 이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예수의 피를 믿고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종교이다.
이미 중동 아시아와 고대 사회의 여러 종교에서 짐승의 피를 바치므로 제사자의 죄가 속죄를 받는 의식이 있어왔다.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구약의 어린 양이나 염소의 속죄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예수의 속죄는 역사적으로 일회적이며 유일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유일회적으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써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속죄자가 되셨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애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다가오는 메시아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다(사 63:4-5). 아무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아직도 다른 종교에서는 짐승제물이 되풀이된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인간들로부터 나온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흠이 있어 온전하지 못하며, 제사드리는 자들도 허물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증언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히 10:11). 이 구약의 제사는 다가오는 실재의 예표이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히 10:1).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들의 제물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는 단 한번만에 결정적인(once for all) 제물이 되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 10:12)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4). 예수는 희생되시기 때문에 승리자시다(Victor, quia victima).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이실뿐 아니라 스스로 유일한 속죄자요 구속자이신 것이다.
속죄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써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논리다. 속죄의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 높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신비로 수행되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써는 결코 밝혀 낼 수 없는 신비다. 속죄의 신비는 삼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의 속죄행위로서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계속>

김한요 칼럼

가정 같은 교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는 ‘가정’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요즘은 잘 찾아 볼 수 없지만, 가정 분위기 나는 Friendly’s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전 Claim Jumper 식당을 갔는데, 모

처럼 집밥 같은 미국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집에 다녀오면 가져오는 홈메이드 apple cider, chicken pot pie 맛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의 마음에 엄마가 만든 집밥과 같습니다. 대학 갔다가 돌아온 딸이 엄마가 만든 밥을 찾듯이 말입니다.
미주 동부에서 목회할 때, 교회 표어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가정을 닮은 곳이고, 가정 역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닮은 곳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도 성격과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교회도 한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인격이 부족하여 이기적인 자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착하

고 인품이 갖추어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상적이고 완벽할 수 없듯이,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순과 갈등이 다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회초리가 있듯이, 교회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들이 뭘 아냐?” 이런 말로 아이들이 칼 가지고 장난치며 동생 얼굴을 긁는 일을 관망하고 할 부모가 없듯이, 교회 역시 연약한 지체에 상처를 입히는 무분별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갈등 속에 집을 나간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출’한 자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교회 안에는 파를 나누는 일은 없어야 합니

다. 가정 안에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와 나뉘어 싸운다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니듯, 교회도 마찬가지로 차별하고 내치는 가정이 있다면 비극입니다. 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지체를 가족 같이 안아주는 공동체입니다. 미숫가루가 잘 풀어져야 제 맛이 나듯이, 서로가 잘 융해되어 하나되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라 좋습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종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성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종보기도회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종보기도회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킴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금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11:00
오전 8:00
오후 9:00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수요일예배 아침기도회(온라인) 기도모임
오전 11:30
오후 1:30
오전 7:00(화-토)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예배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종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나눔 코이 모임
오후 1:00
오전 6:00(화-토)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오전 10:30
오후 7:30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토요일종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osgc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저녁 7:30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요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아) / 금요일 오후 8:00 (영아)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아)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 (한아)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사는 법

‘나라에 정의를, 나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박국,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조덕환 역 | 시들지않는소망
272쪽 | 17,500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기아,
최근 몇 년간 겪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으로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박국서는
그런 현실에 대한
성경적인 답과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박국서 강해는
그러한 점을 적실하게
잘 설명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책이다

‘시들지않는소망’이라는 출판사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2024년 4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통>(티렌스 E. 프레타임)에 이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박국,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출판사에서 나온 두 번째 책이기 때문이다(2024. 12).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러 권의 구약 주석을 썼고(BST 시리즈, UBC 시리즈), 성경 윤리와 선교에 관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는(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구약의 경제 윤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나 보다), 올소울스(All Souls)교회 소속 학자이자 영국성공회 사제다.

하박국의 역사적·문화적·신학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선지자가 바라보고 질문했던 상황을 오늘날 독자가 처한 상황과 연결하고, 하박국이 강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결단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하박국이 기록된 시대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를 모두 포함하는, 만물이 창조된 시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독자를 권면한다. 출판사 이름뿐 아니라 저자, 나아가 하박국 자체가 생소한 독자에게는 지극히 주관적이겠지만, 이 책은 하박국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폭력이 난무한 당시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교훈을 제시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다만 누구 또는 무엇을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볼 것인가는 개인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개인보다 체제, 가난한 자보다 부한 자의 폭력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이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이 주목하는 죄가 이스라엘 지도층과 그들이 만든 기

울어진 사회적 경제적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저자는 또한 이스라엘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하고 폭력적인 악을 범하게 된 근본 이유를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라이트의 다른 책을 접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말끔히 사라질 것 같지만(혹은 그 반대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 책에서 개인이 범하는 폭력에 관해 균형 있게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폭력만 탓하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기 마련이니).

하박국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구성된 책이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폭력에 잠잠하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은 그에 관한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을 준비했다고 대답하신다. 선지자는 이어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답하시는 것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정의를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며 온전한 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과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굳게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자는 하박국의 결론, 즉 선지자의 고백이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정리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정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에 매진할 것입니다(252-253쪽).”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자가 하박국 마지막 구절인 3장 19절을 설명할 때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수동적 기다림과 버팀이 아니라 능동적 뛰어들기로 설명한 것이었다. ‘높은곳’을 우상 숭배하던 산당으로 해석한 저자는 하박국이 폭



▲다니엘과 하박국이 함께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성서와 공동번역에만 있는 ‘다니엘서 14장’ 내용이라고 한다. ©위키

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동안, 그분을 힘입어 계속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상숭배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위태로운 낭떠러지를 꺾어 이 뛰어오르는 사슴처럼, 눈앞의 세상은 우상숭배와 범죄가 만연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

어가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굉장히 적실하고 유익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탄식과 항의가 담긴 기도를 하는 사람, 성경 전체 이야기를 잘 알고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권면으로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책을 마무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2:12



May you be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RUTH 2:12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담임목사 청빙!

창립 40주년을 맞는 미국 동부 뉴저지 파라머스에 위치한 PCUSA 소속
참빛장로교회는 몸되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4대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 목회 5년 이상 경험 있으신 분 (부목사 포함)
- 한국어/영어로 소통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CLC PDF 추천
(영문) <https://pcusa.org/resource/clc-personal-discernment-form>
(한글) <https://pcusa.org/ko/resource/gaein-sebu-somyeong-sigbyeol-peulopil>
-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 목회비전 1부 (신앙간증문,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 학위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2명의 추천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 접수마감 8월 15일까지

■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청빙심사에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청빙 절차 마치는 즉시 폐기됩니다.
- 2.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청빙 결과는 개별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처 E-mail: pnc.truelight@gmail.com

참빛교회 청빙위원회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기산 김준근의 『천로역정』 삽도

〈천로역정〉으로 인생 바뀐 길선주 목사의 〈만사성취〉

길선주, 천로역정 서사 차용해 ‘해타론’ 이어 ‘만사성취’ 발간
한국인 입장 천로역정 재해석
삽화 11점 줄거리와 의도 설명

구한말 벽안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한반도 전역에 복음이 널리 퍼져갔다. 그들은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을 짓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신문화를 보급하였다. 게일 선교사의 『천로역정』도 그런 시대적 배경 아래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기독교 전파에 획기적 기여를 했다.

한국인 중 『천로역정』을 감명 깊게 읽은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삶 자체까지 송두리채 바꾼 사람도 출현하였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은 길선주 목사(1869-1935)였다.

길선주는 친구 김종섭이 선물한 『천로역정』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책을 읽는 내내 눈물로 책장을 넘겼다고 한다. 말하자면 한 권의 책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셈이다. 길선주는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도교(道敎)와 관성교(關聖敎)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천로역정』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뚜렷했던 것 같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형용한 『천로역정』 서사구조를 차용하여 그는 한국인 최초 기독교 저작인 『해타론』(懈惰

論)(1904)을 집필하였고, 이어 『만사성취』(1916)를 발간하였다.

『만사성취』는 『해타론』의 증보판으로 ‘연초(煙草)’와 ‘해타의 행동’ 사이에 ‘아편(鴉片)’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한국인 입장에서 『천로역정』을 새롭게 해석한 책을 펴낸 것이다.

특히 이 책에는 챕터 구별이 없던 것을 28개 장으로 나눈 다음 소제목을 붙였으며, 11점의 삽화를 넣어 책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11점의 삽화는 전통 산수화에서 볼 수 있을직한 모습을 취하고 있거나와 정자, 누각, 성문 등 전통적인 건물이 등장하고, 복식은 김근중의 풍속화에서 만나는 채래 복식과 함께 관을 쓴 인물도 볼 수 있다.

누가 삽화를 그렸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툰 표현으로 미루어 미술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 같지는 않고 지인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추측은 길선주 자신이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길선주 목사가 일찍이 문화 묵화에 관심을 기울였고 3남 길진섭이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귀국하여 활약한 인물로, 집안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의 심증에 그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기에 확증할 수는 없다.

책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 여러 연구물이 나와 있으므로, 삽화에 대해서만 약간 설명을 하기로 하자. 먼저 『만사성취』의 삽화는 『천로역정』처럼 글과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미지는 장식적으로 기용되었다기보다 내용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줄거리를 함축함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가령 ‘사로(思路)’를 보면 주인공이 갈길에서 주저앉은 채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만일 ‘사로’에서 ‘취주로’, ‘연락로’, ‘음란로’, ‘자만로’, ‘이심로’, ‘급심로’로 빠질 경우 낙오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길선주는 ‘정로’(正路)로 들어서서 ‘모안로’에서 게으름을 극복하고 ‘고난산’을 넘어감으로써, 지상에서의 최종 목적지인 ‘성취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저 멀리 구름이 지나가는 풍경을 배경으로 들판

에 주저앉은 인물을 포치시키는 것은 일반 산수나 인물화에서는 볼 수 없는 구도이다. 그림 제작자는 전승된 동양화 전통에 얽매이기보다, 책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덕분에 삽화 ‘사로’를 보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양상은 〈다수산〉에서도 점검된다. ‘다수산’에 오르는 사람마다 졸음에 취해 잠에 빠지게 된다. ‘산의 경치’에 마음에 빠졌긴 인물로 미루어, 안목의 정욕 내지 세상 영화에 심취된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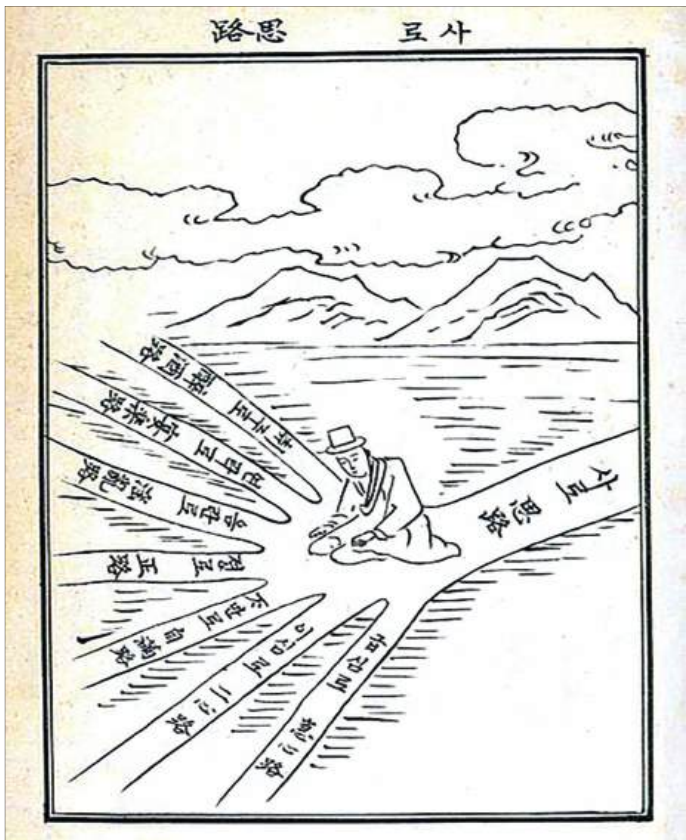
‘다수산’ 주위에는 나무와 개천, 꽃이 피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망리수’를 뜻하는 나무의 바람을 맞으면 참 이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기천’이라는 물을 마시면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어렵게 되며, ‘훈미화’라는 꽃의 냄새를 맡으며 정신이 혼미해지게 된다. 저자는 시험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갖는 안락과 여유가 자칫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만사성취』는 내용상 게으름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작품이 나온 시기는 외세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한반도가 저들의 전쟁터로 전락하고 일제의 경제침탈, 을사늑약, 고종 폐위, 군대 해산, 한일합병, 일제의 무단통치, 105인 사건 등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앙드레 슈미드(Andre Shumid)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격류를 헤쳐가는 연약한 배’로 묘사한 바 있다.

한일합병은 길선주에게도 큰 아픔을 안겨 주었다. 선전의 신성중학교 교사였던 장남 길진형은 ‘105인 사건’으로 일경(日警)의 모진 고문을 받아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고, 길선주 목사 역시 민족대표 중 한 명으로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 책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만은 아니었다. 이 점은 제2장 ‘소원성’ 삽화에서



▲길선주의 〈만사성취〉중 ‘사로’, 1916.

엿볼 수 있다. 단층 누각과 성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일군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박정세 교수는 이 그림이 당대의 정치적 상황은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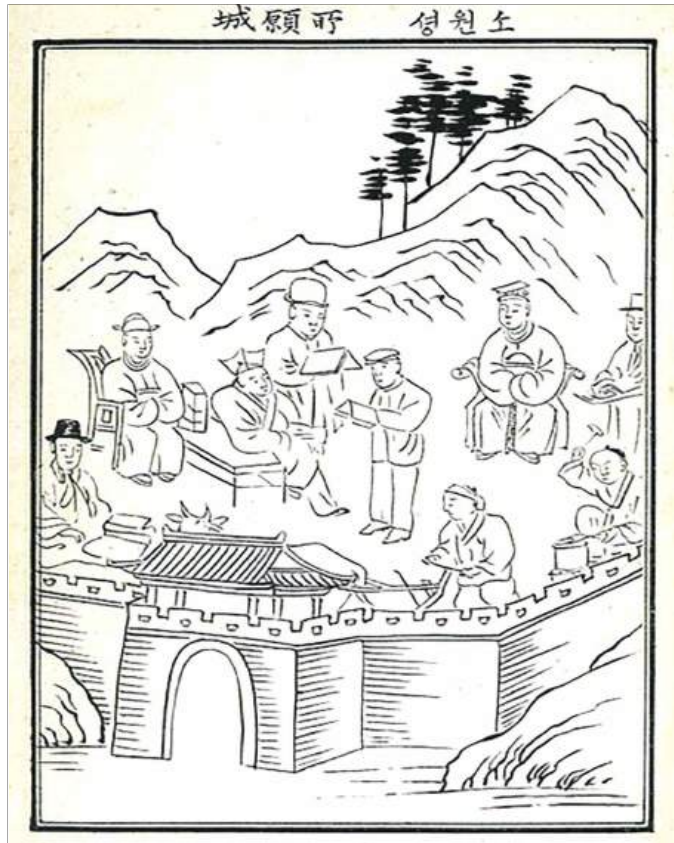
그림을 보면, 무단 식민정책을 폈던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로 추정되는 인물이 막강한 힘을 과시하듯 다리를 꼬고 있는데 비해, 화면 우측에 조선 관복을 입은 순종(純宗)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공손히 두 손을 모은 포즈와 대조된다.

권력의 중심에 선 데라우치와 달리 권력을 잃은 순종의 시선은 던지시 데라우치 쪽을 향해 있다. 주위에 밭을 갈고 농부, 망치질을 하는 대장장이, 선비를 등장시켜 국권을 잃어버린 당시의 상황을 환기시킨다.

책이 발간된 시기는 망국의 통탄과 무단정치가 자행되던,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던 때였다. 나라는 쇠잔해졌고 그 가운데 개인의 삶조차 온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풍전등화의 현실 앞에서 자학, 폭음, 속임수 등 자멸의 길로 빠져들었고, 어디에도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던 사람들은 자포자기에 빠지기 일쑤였다.

길선주 목사는 이러한 처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imitatio Christi)’으로써 기독교가 겨레에게 희망을 주고 태평건곤(泰平乾坤,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함- 필자 주)을 이루는 반석이 되기를 바랐다.

『만사성취』가 영적 순례를 담은 작품이면서 우리 동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해 민족 구원에 이룰 수 있을지 밝혀주는 책자로 생각되는 이유이다.



▲길선주의 〈만사성취〉중 ‘소원성’, 1916.



CROCKETT HONEY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1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세알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tax

2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tax

3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 시선으로 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K팝과 한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연일 화제다.

높은 완성도의 K팝과 흥미로운 줄거리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작품은,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놀랍게도 ‘은혜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강렬하게 담고 있다. 사탄과 죄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토록 세련되고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혼자 이 은혜를 누리기가 아까워,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것들을 나뉘보고자 한다.

1. K팝 스타의 이중 생활, 그들의 진짜 ‘사명’
- 세계적인 걸그룹 헌트릭스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선 K팝 슈퍼스타지만, 그들의 진짜 정체는 무대 밖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데몬 헌터’(Demon Hunter)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는 ‘혼문(魂門)’을 수호한다.
- 혼문은 악의 기운이 인간의 마음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영적 보호막이며,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지키는 방패,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귀마는 혼문이 완성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며 “혼문이 완성되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이 소멸하는’ 종말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귀마는 악령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 인간의 영혼을 빼앗으며 세력을 유지하려 한다. 악령은 달콤한 노래와 세상 문화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침투하고, 수치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2. 상처를 숨길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헌트릭스의 리더 루미는 인간과 악령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몸에 악령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상처를 숨기며 살아간다. 그녀는 상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그 문양을 철저히 감춘다.

헌트릭스의 스승이자 루미의 양어머니인 셀린 역시 루미가 상처를 드러내지 않길 바랄 뿐이다. “혼문이 완성되면 문양이 사라질 거야. 그때까지만 숨겨.” 이는 “완전해진 다음에야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과도 같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죄와 수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의로 우사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요한일서 1:7-9) 진정한 치유는 진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3. 사명의 공백은 악이 파고드는 기회

루미는 혼문을 거의 완성해가던 중, 목소리가 망가져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워진다. 루미는 “자신을 숨기면 숨길수록 수치심이 커지고, 자신의 삶과 목소리도 망가져 간다”고 말한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닌, 혼문을 지탱하는 영적 율법이었기에 그 침묵은 곧 영적 공백으로 이어진다.

루미가 노래를 멈춘 사이, 귀마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 ‘사자보이즈’를 데뷔시킨다. 청량한 비주얼과 감미로운 멜로디로 첫 무대를 선보인 이들은, 두 번째 곡 ‘Your Idol’에서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다. “내 황홀함에 빠져봐, 너는 눈을 뗄 수 없을 거야 / 널 구하려 온 거 몰랐어? 널 날 필요로 해, 난 네 우상이 될 거야 / 표내지 마, 전부 감춰 고통과 부끄러움 모두 숨겨 / 널 자유롭게 해줄게 / 내 일부가 된다면 / 이제 널 구하려 올 사

람 없어 / 너 무릎 꿇었지, 난 네 우상이 될 거야” 이 노랫말은 마치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 문화 속에 침투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처음에는 매혹적인 위로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 형상된 자아를 포기하고 죄의 세력에 자신을 내맡기게 만드는 속임수다.

사자보이즈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팬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며 악령의 세력을 확대해간다. 루미의 침묵은 단지 한 사람의 슬럼프가 아니라, 세상을 지켜오던 혼문이 붕괴되는 영적 균열의 시작이었다. 이는 마치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마태복음 26:41)는 영적 경고처럼 들린다. 기독교인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사명의 불을 꺼트릴 때, 그 공백은 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버리고 악이 횡행하게 된다.

4. 구원, 혐오 아닌 사랑으로

혼문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돌 시상식 무대를 앞두고 루미는 사자보이즈 디스크를 준비하며 가사를 쓴다. “네 문양이 드러날 때, 내 혐오가 일어나.” 그러나 진우는 루미에게 이렇게 말한다. “혐오로 귀마를 이길 수 있었다면, 내가 벌써 이겼을 거야.” 죄인을 ‘혐오’로 대할 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민 끝에 루미는 가사를 수정한다. “네 문양이 드러날 때, 그 아래 숨겨진 고통이 보여.” 죄인을 향한 그녀의 시선이 정죄에서 긍휼로, 혐오에서 이해와 공감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복음이 죄인을 감싸 안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상징한다.

5. 상처의 고백이 중생을 낳다: 진짜 혼문의 완성

루미는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처음엔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 했지만, 결국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넷플릭스

“내 존재 자체가 치부였지. 근데 너를 만나고 너랑 얘기할수록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목소리가 돌아왔어.”

복음은 완전한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중생(重生)이다. 중생한 자는 진짜 혼문,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강해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완성하는 나라인 것이다.

6. 황금 혼문, 새 노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혼문이 완성되려는 순간, 루미의 정체가 드러나며 멤버들과 갈등이 생긴다. 귀마는 그 틈을 파고들고, 세상은 악령의 소굴이 되기 직전까지 치달는다. 그러나 루미는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한 채 무대에 선다. 귀마는 “너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세상을 고치겠다고?”라고 말하며 루미를 비웃는다. 하지만 루미는 귀마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 ‘What It Sounds Like’를 부른다. 사자보이즈 디스크가 아닌 자신들의 진실된 노래를 부른 것이다.

“우리 악마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고, 서로 갈라놓게 뉘었지만 / 여기에

혼자 있는 사람은 없어. 흉터도 나의 일부 / 거짓 없는 내 목소리 / 이게 바로 내 진짜 소리야!”

루미의 노래를 듣고 하나된 헌트릭스는 하모니를 맞춰 노래를 부른다. 진우는 자신의 영혼을 검으로 바쳐 루미와 싸우고, 그 희생 위에 황금 혼문이 열린다. 공연장에 모인 팬들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예배자들처럼 함께 울고 노래한다. 이 장면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송하니...” (요한계시록 14:3)

이 영화는 단순히 헌트릭스의 성장담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깊은 회개와 회복, 공동체 안에서의 수용과 사랑을 진심 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문화를 복음의 렌즈로 분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예배자의 이야기로 수렴된다.

“당신은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김은애 기자

폭염 속 英 본머스 부두 앞바다에서 92명 세레... “신앙의 축제”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영국 본머스(Bournemouth) 보스컴 부두(Boscombe Pier) 앞바다에서 대규모 세레식이 열렸다.

다섯 개 지역 교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총 92명이 공개 세례를 받았으며, 수백 명의 인파가 이를 지켜보며 함께 축하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

르면, 이번 행사는 도셋(Dorset) 해안에서 열린 야외 예배의 일환으로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진행됐다. 주최 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다”며 이번 세레식의 의미를 전했다.

행사를 이끈 랜즈다운 교회(Lansdowne Church)의 담임인

피터 베이커(Peter Baker) 목사는 “이번 세레식은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였다”며 “행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머스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용한 부흥’을 경험하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라며

“이날 해변 분위기는 마치 축제 같았으며, 앞으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유사한 행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레자 중에는 링우드(Ringwood) 출신의 리암 브라운넨(35)도 있었다. 그는 BBC 뉴스 사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앙이 중독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 밝혔다.

“이번 세레식은 지역 교회와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행사였을 뿐 아니라,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본머스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활동을 인상 깊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CT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2025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썸머캠프**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다 못 보내도 백만장자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재정관 설립과 지혜로운 재정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특정한 재정개념, 돈나무 한그루씩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9시 30분에서 4시까지 진행됩니다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부모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학생 중 두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WED. JULY 30

WISE CALIFORNIA FINANCE
3435 WILSHIRE BLVD., 14FL
L A, CA 90010

BREA
THUR. JULY 31

Community Center
695 Medison Way
Brea CA 92821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PRESENT

<REGISTRATION FEE \$100>
REGISTER HERE!

한국어

영어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머니토크 #영하속 토 이야기 #성경에서 배우는 재정
#손님을 섬겨 케이스 적용까지 살펴봅니다.

626.827.9599
SYM00NMONEYTALK@GMAIL.COM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중앙일보

기독교일보

SYNCIS

리더서울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BMO

TV
CHOSUN

朝鮮日報
창간 105주년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TOP7 LIVE IN LA

미스터트롯3

추길

손빈아

김용빈

추혁진

천록담

남승민

최재명

2025. 8. 24(일) 2PM, 6:30PM

WILSHIRE EBELL THEATRE 월셔 이벨 극장

TICKET OPEN

chosunticket.com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LA

티켓 예매 (213)459-6800 | (213)315-5177

미스터트롯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추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SHOW.
SHOW
SHOW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CARNIVAL RADIANCE

탈렌트쇼 & 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

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

미스터트롯3 프리미엄 선상 공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래스카 크루즈 등)

▶요금: 오션뷰 \$1,799
발코니 \$1,999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완납, 캔슬시 패널티 적용

여행의 명문 -
et ELITE TOUR

엘리트 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